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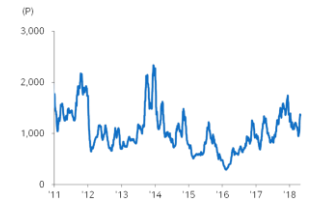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265.3	17.6	119,500	-0.4	-5.2	-14.0	24.5	83.3	39.9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6,693.8	21.7	411,000	-2.1	-1.4	-9.8	7.9	5.5	4.6	0.7	0.6	14.1	14.7
현대엘리텍	949.1	5.4	93,000	-6.3	16.5	-25.6	-18.4	8.8	7.7	0.8	0.7	9.3	9.7
현대건설기계	1,787.6	8.4	181,000	-7.4	7.4	-9.3	7.1	11.5	8.5	1.3	1.1	11.7	13.9
삼성중공업	3,275.4	16.2	7,260	-1.4	-3.7	-13.4	12.2	45.8	22.7	0.4	0.4	1.0	1.9
대우조선해양	2,615.8	4.5	24,400	0.8	-3.9	4.5	75.5	9.0	10.8	0.8	0.7	9.0	6.8
현대미포조선	1,918.0	9.8	95,900	4.1	0.9	-15.1	21.9	20.7	14.9	0.7	0.7	3.6	4.8
한진중공업	371.2	6.7	3,500	-1.0	12.2	-5.7	5.7	70.4	17.6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473.4	23.9	92,400	-7.0	15.9	49.8	69.9	16.3	15.9	2.2	2.0	14.6	13.3
두산발켓	3,233.0	26.6	32,250	-1.1	4.7	-10.5	-9.9	11.8	11.1	0.9	0.9	7.4	7.6
현대로템	2,295.0	17.7	27,000	-17.2	70.3	59.3	44.0	34.8	23.7	1.5	1.5	4.5	6.3
하이룩코리아	368.2	49.1	27,050	-2.3	17.1	0.6	20.2	12.2	11.2	1.0	1.0	8.8	9.0
성광랜드	346.1	16.8	12,100	-2.0	9.5	0.8	21.2	1,069.6	43.4	0.8	0.8	0.1	1.8
태광	375.0	12.6	14,150	-0.4	18.9	-2.7	17.4	84.5	41.3	0.9	0.9	1.0	2.1
두산중공업	1,964.2	11.3	18,450	1.7	19.4	13.5	20.2	17.7	11.4	0.6	0.6	3.7	5.2
두산인프라코어	2,081.5	13.3	10,000	-3.4	17.5	-7.4	15.1	7.2	6.6	1.1	0.9	15.6	15.0
두산엔진	452.4	3.4	6,510	2.0	15.6	50.0	76.7	-65.2	100.4	0.8	0.8	-1.3	0.8
한국항공우주산업	4,152.4	16.1	42,600	3.0	-13.0	-15.6	-10.2	33.6	23.7	3.4	3.0	9.9	12.9
한화테크윈	1,257.1	12.7	23,900	2.4	-16.1	-27.5	-32.8	23.2	14.1	0.6	0.5	2.4	3.8
LIG넥스원	853.6	10.8	38,800	4.6	-19.8	-32.4	-35.1	16.2	11.9	1.3	1.2	8.5	10.8
태웅	404.1	4.5	20,200	-1.7	9.8	-14.2	4.4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64.3	5.7	6,090	-3.3	-18.4	-27.8	20.6	-44.8	64.1	1.9	1.9	-4.3	3.1
한국카본	263.3	13.9	5,990	-1.3	2.9	-13.8	11.8	53.2	29.4	0.8	0.8	1.6	2.8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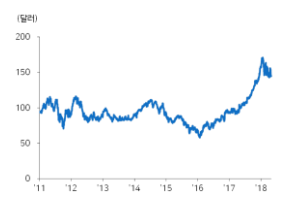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30 1376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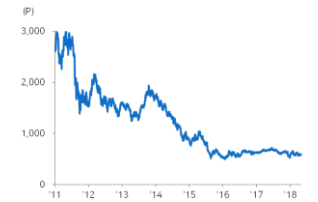
Caterpillar(CommonStock) -0.08 143.78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Zodiac Maritime extends Hyundai Heavy boxship series

컨테이너선사 Zodiac Maritime은 현대중공업에 총 4,368억원(4.07억달러) 규모의 컨테이너선 4척을 발주함. 선대 리뉴얼의 일환으로, 인도는 2020년 중반으로 예정됨. 이번 발주는 과거 Zodiac Maritime이 발주한 14,300TEU 9척의 옵션분으로 예상된다고 알려졌다. (TradeWinds)

SWS poised to bag orders from South Korean duo

국내선사 장교상선과 폴라리스워핑은 중국 SWS 조선소(Shanghai Waigaoqiao Shipbuilding)에 총 5척의 벌크선을 발주했다고 알려졌다. 장교상선은 4척의 Newcastlemax급, 폴라리스는 1척의 Capesize급으로 알려졌다. 벌크선 부문에서 한국과 중국의 선가는 수백만달러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알려졌다. (TradeWinds)

WTO may not bring joy to either Tokyo or Seoul in subsidies spat

일본이 WTO에 1) 가격 덤핑과, 2) 정부의 지원을 근거로 한국의 조선 산업을 제소한 사례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한국은 가격덤핑 부문에서는 중국을 근거로 대응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이 WTO에 가입할 때, EU가 한국을 제소하지 못하고 조선업을 뺐었던 사례를 감안하면 가능성이 낮음. (TradeWinds)

초대형 선박 주문 94척 더 나온다...해운업계 발주 경쟁 본격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는 작년 하반기부터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4~5년 안에 138척이 인도될 것으로 전망함. 작년 하반기부터 44척이 발주됐고, 94척이 추가 발주될 전망이다. 경쟁 선사 대비 초대형 선박이 부족한 선사 위주로 발주에 나서며, 국내 조선사 수주가능성이 있음. (조선비즈)

Solvang on verge of inking VLGC newbuild at HHI

노르웨이 LPG선사 Solvang은 현대중공업에 VLGC 1척을 발주함. 인도는 내년 말로 계획되며, 선가는 6,500만달러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은 장기 용선계약에 맞춰 인도가 빠르다고 알려졌다. 현재 LPG 운송물량은 최저점 수준으로 신조선가 인하 압력이 있고, 주요 선사는 VLGC 옵션을 보유했다고 알려졌다. (TradeWinds)

현대중, 1분기 매출 3조425억·영업손실 1238억

현대중공업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3조 425억원(-29.4% YoY), 영업손실 1,238억원(적자전환)을 기록함. 1분기 매출은 전 사업부의 수주물량 감소에 따라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매출감소에 따른 고정비 증가와 원자재가 상승 및 환율 문제로 발생했지만, 전분기 대비 손실 폭을 줄였다고 알려졌다. (뉴스시스)

Yamal, 대우조선과 Arc7 쇄빙선 조기 인도 협의

Yamal LNG 프로젝트 2호 트레인인 당초 예상보다 빠른 8월 중에 가동을 개시할 전망이며, 이에 맞춰 대우조선해양과 용선업체인 Dynagas, Sinotrans, China LNG Shipping 등과 5척 중 3척의 조기 인도를 협의 중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임시 대체 투입선을 투입하기 위해 용선 상담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선박뉴스)

선박 LNG연료 급성장... "2040년 벙커유 따라잡을 것"

알파벳커스에 따르면 IMO 환경규제가 시작되는 2020년 LNG추진선에 사용되는 LNG연료유가 일일 20만배럴에 달할 전망이다. 또 LNG추진선은 오는 2050년 적용되는 선박 이산화탄소 배출량 50% 절감의 대안이기 때문에 선호된다고 알려졌다. 2040년에는 LNG가 선박연료로 완전히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함. (EBN)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5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가로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5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분석사님 담당자는 2018년 5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사: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